

치과대학 연극과 졸업생

오 · 종 · 우

글/송유리 기자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이 있다. 주인공은 늘 술에 절어사는 중년의 사내. 하지만 그에게 술을 마셔야만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술을 마시는 것으로라도 풀어버리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은 삶의 무게가 그에게 술을 권한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

막이 오르기 전 암흑 속에 울려 퍼지는 노래. 돈 벌어서 보란 듯이 살아보겠다는 머슴집 아들 만수와 크게 한탕 쳐서 폼나게 살겠다는 기치촌 출신 떠벌이 칠수에게 좋은 날은 과연 올까.

사회의 저 밑바닥에서 그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들에게 좋은 날이 과연 올까.

박정희 정권의 암울한 시대, 극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젊은 이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하루를 서른 여섯시간처럼 살아가던 그들을, 너무나 고단하게 살아가던 그들을 산업화 과정의 한 소모품, 사회의 부속물로 전락시키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 시대의 자화상이었다.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늘진 시대의 아픔을 떠안고 살아야했던 칠수와 만



수로 대변되는 우리의 과거.

86년 초연된 연극 〈칠수와 만수〉가 지난 6월 연우무대 2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무대에 올려졌다. 이와 더불어 다시금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칠수와 만수〉의 공동작가 오종우. 11년전 불혹을 바라보던 그는 어느덧 50대에 접어들고 있고 세상은 많이도 변했지만, 11년전 20층짜리 빌딩벽에 매달려 광고물을 그리던 칠수와 만수는 지금도 여전히 광고물을 그리며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고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별반 달라진게 없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도 칠수와 만수의 이야기가 그리

낮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직접적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든 하는 불만을 토로하지도 않는 그들을 통해 11년전과 마찬가지로 박장대소를 해대다가도 씩씩한 그 무언가를 삼키게 되는 이유는 뭘까. 작가 오종우는 〈칠수와 만수〉를 통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는 이번 재공연의 자리를 빌어 칠수와 만수의 추락이후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다.

“만수야 넌 괜찮니? 난 요즘은 떨어지는 꿈을 꾸고 있다. 10년전 신촌에서 떨어진 이후 지금까지 거의 매일 꼭대기에서 나는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그렇게 매일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나는 자꾸 꼭대기에... 그런데 만수야, 그때는 너랑 같이 떨어졌는데 꿈속에서 떨어질 때는 왜 나 혼자 떨어지지?”
(보내지 않은 또 다른 칠수의 편지 중)

오 종우. 그의 공식적인 직업은 두가지다. 치과의사와 연극인. 연극인이라는 명칭이 그에게는 더욱 잘 어울릴 것 같지만 그는 한사코 아마추어임을 강조한다. 연극으로 밥을 먹고 사는게 아닌 이상 자신은 아마추어일 뿐이라는 것이다. 연극이 아니면 살아갈 방도가 없는 사람만이 글쓰기에 더 절박해지고 게을러지지 않는다는 그의 [프로론]. 하지만 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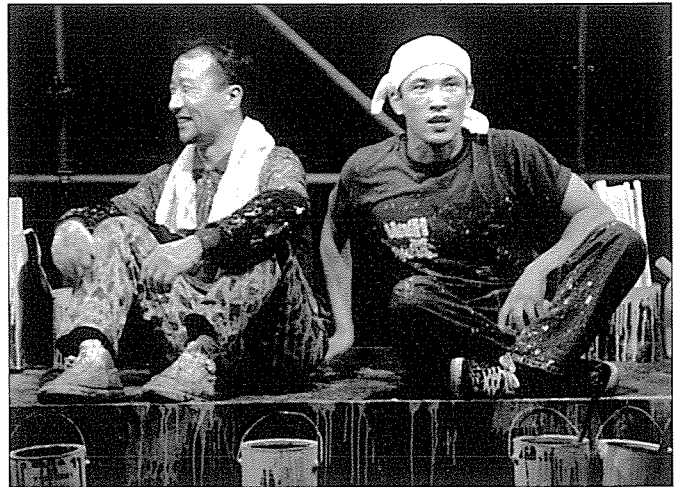
〈칠수와 만수〉 연극 스텝진과 함께, 우측에서 두번째가 오종우

아마추어라 치부하기엔 그가 가진 전적이 너무 화려하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연극반에서 극작 및 연출 수업, 75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희곡부문 당선, 20년 역사로 우리 연극계의 곳곳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해온 [연우무대]의 공동창작인, 연극인 이상우와 공동작업을 한 〈칠수와 만수〉 86년 백상예술상 작품상 수상 등등...

‘치과대학 연극과’를 졸업했노라고 곧잘 우스개소리처럼 말하곤 하는 그는 기대가 많았던 대학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을 즈음 연극반을 모집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 연극반 연습장을 찾았다. 무작정 연극반에 뛰어들었다.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고 있어도 그는 그저 즐겁기만 했다. 그렇게 조연출을 하고, 연출을 하고, 극을 썼다.

치과의사 국가고시 시험 전날에도 그는 지방순회공연 중이었다. 밤차로 올라와 시험을 치른 그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공연장으로 향했다. 모두들 불합격한 5% 중에 ‘오종우’라는 이름이 있을거라며 걱정했지만 그는 시험에 합격했고



연극 〈칠수와 만수〉 중에서

‘치과의사’라는 또다른 직업을 얻었다. 연극인 오종우에게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자유로운 연극작업을 가능케 해준다는 고마운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그를 한없이 게을러지게 하는 독소같은 의미를 갖기도 한다.

글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괴롭힌다. 숙제를 하지 않고 학교에 가는 아이처럼 늘 뭔가가 꺼림칙하다. 치과의사라는 직업으로 삶을 꾸려가면서 시간에 쫓기기도 하지만 안일하고 편안한 생활이 자꾸만 자꾸만 그를 책상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있다. 펜을 들어야 하는데, 더 이상 방만하게 살아서는 안되는데, 글이 써지지 않는다. 머리속을 뱅뱅 돌기만 하는 생각의 꼬투리들이 그를 더욱 괴롭힌다.

그래서 그는 오늘 연우소극장을 찾는다.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서일가. 〈칠수와 만수〉를 다시 무대에 올린 연우무대 스텝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짐을 느낀다. 글을 쓸 수가 없지만, 그래서 늘 뭔가 빛지고 있는 느낌이지만 그들을 만남으로써 또다른 칠수와 만수를 만나고 그렇게 만난 칠수와 만수는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준다.

살아가는 동안 결코 버리지 않을 두 이름, ‘연극인 오종우’ ‘치과의사 오종우’. 그 어느 것에도 더하고 덜한 힘을 믿고 싶진 않다. 30여년을 이 두이름 속에 살아왔기에 몸에 잘 맞는 한벌의 옷처럼 그에게서 어느 하나를 떨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그의 진료실 한켠 책장 위에는 치과관련지와 연극전문잡지가 나란히 꽂혀 있는 거겠지.